

몽골제국과 화약무기—메이지와 현대의 '원구'이미지—

向正樹 mmukai@mail.doshisha.ac.jp
(原文日本語、翻訳：李へり)

1 . 변화된 몽골의 이미지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몽골제국(몽고제국)의 이미지는 90 년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 특히 杉山正明(스기야마 마사아키)씨의 일련의 저작물 ¹이나 미디어 ²를 통해, 몽골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그 영향은 널리 침투되고 있다. 다원사회를 통치하는 유연성과 경영마인드 풍부한 통치집단으로서의 새로운 몽골상이 세계에 파멸을 가져다 준 정복자로서의 고정관념을 대신한다. 몽골인 제일주의, 九儒十口(구유십개: 유학을 공부한 사람은 9 번째, 거지는 10 번째), 라마교 광신과 같은 고색창연한 옛 정설은 통렬하게 비판 받았다.

그렇다면 국민차원에서 몽골의 일본원정 이미지는 그것이 민족적인 정체성 강화로 이용된 세계대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변해왔을까? 일본의 서양화가인 야다 잇쇼(^{やだ いっしょう} 矢田一嘯 (1859 - 1913))의 파노라마화 '몽고습래회도'와 최근 중국의 관광지에 나타난 파노라마 전시와 일본의 만화 등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야다 잇쇼(矢田一嘯)와 원구기념비 운동

야다 잇쇼는 일본 메이지기에 활약한 서양화가로서 역사를 주제로 한 파노라마그림을 많이 남긴 인물이다. 1858 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일본화를 배운 후에 서양화를 배우고 1882 년 경에 구미로 건너가 귀국 후에는 우에노 파노라마관에 보신전쟁(戊辰戦争)의 파노라마화를 그려 주목을 받았다.

파노라마관이란 원기둥의 건물내부에 대화면을 보여주는 시설이다. 1794 년에 런던에서 탄생해 구미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야다도 해외에 체류할 당시 그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1890 년에 문을 연 우에노 파노라마관은 일본최초의 것으로 아사쿠사, 오사카, 교토, 구마모토, 도야마에도 건설되었다.

야다는 그 후 구마모토에 규슈 최초의 파노라마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 세이난전쟁(西南戦争)의 파노라마화를 그리면서 활약했다. 1894 년 후쿠오카로 옮겨가자 하카타에 원구기념비(元寇記念碑)를 건설하는 운동에 찬동하여 그것을 위해 원구를 주제로 한 일련의 파노라마화를 그렸다. 원구기념비에 건설된 히가시공원(東公園)에는 그것들을 전시하기 위해 원구기념파노라마관도 만들어졌다 ³. 야다는 또한 해부학의 지식을 살려 하카타 인형의 육성에도 노력하였고, 1913 년에 죽었다 ⁴.

¹ 杉山正明『大몽골의 세계—육지와 바다의 거대제국—』(角川選書 227), 角川書店, 1992; 『쿠빌라이의 도전—몽골해상제국으로의 길—』(朝日選書 525), 朝日新聞社, 1995; 『몽골제국의 흥망』講談社, 1996.

² NHK 스페셜「大몽골」(1992 年放送)등.

³ 후술한 佐野前勵上人に 의해 동상 앞 광장에 세워졌으나, 大正中期에 큰 폭풍우로 인하여 쓰러졌다. 太田弘毅編著『元寇役의回顧—記念碑建設史料—』錦正社, 2009, p. 164.

⁴ 이상, 太田, 2009 및 西本匡伸編『되살아나는 明治絵画—수복된 矢田一嘯「蒙古襲来絵図」—』福岡県立博物館, 2005 에서 인용.

그림 1 야다잇쇼(矢田一嘯) 몽고습래회도(蒙古襲來繪圖) '하카타상륙' 本佛寺



우키와시 홈페이지 >くらし>歴史・伝統文化>元寇の油絵 本仏寺에 소장
http://www.city.ukiha.fukuoka.jp/imgkiji/pub/detail.aspx?c_id=71&id=22 2017년 7월 10일 열람

그림 2 「蒙古襲來繪詞」前卷, 繪 7 宮内廳 소장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C5%8Dko_Sh%C5%ABrai_Ekotoba.jpg?uselang=ja
 2017年7月10日閲覧)

원나라 군사 이미지의 변천—메이지・현대일본과 중국—

야다의 파노라마 그림에는 원나라 군사의 특징 중 하나인 화약무기의 사용이 분명히 그려져 있다(그림 1). 유명한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會詞)'(그림 2)에 그려진 하카타에 상륙한 원나라 군사와의 전투장면에 상상력을 더해서 입체감을 나타낸 구도이다. 앞서 말한 유지 타케오(湯地丈雄)・다카하시 구마타로(高橋熊太朗)의 『元寇』에도 'てつはう(테츠하우)'가 작렬하는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會詞)'의 삽화가 그려져 있고⁵,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 분명히 화약무기에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다.

원나라의 군세는 이미 중앙아시아지방에서 백전을 경험한 용맹한 장졸로서 그 지휘가 잘 갖추어져 진퇴하고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끌어들었다. 전쟁터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특히 독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았으며, 그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 천둥소리처럼 울렸으며 이를 맞은

⁵ 湯地・高橋, 1893, p. 69.

사람은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곧장 목숨을 잃었다....⁶

오늘날 몽골군을 그리는 그림이나 영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더 선진적인 화약무기의 묘사이다. 특히 근년 들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 온전히 증명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화약무기를 몽골군이 이미 실용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려지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근년 다카기 나나히코(たかぎ七彦)의 만화 『앙고르모아 원구합전기(元寇合戦記)』에서는 다음에 말하는 것과 같이 쿠빌라이시대에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금속관형 화기가 등장한다⁷(그림 3-a). 이 사람의 작품은 면밀한 조사에 따른 참신한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 가령 당나라가 선비족의 왕조이며, 당나라 황제가 「天可汗」으로서 세계에 군림했다던가⁸(그림 3-b), 몽골제국을 「울루스」라고 기술하는 것은⁹(그림 3-c), 근년의 연구동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인 등장인물의 대사나 군기(군사 깃발)에 파스파문자, 위구르문자 몽고어가 많이 사용되어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그림 3-d). 이에 비해 야다 잇쇼의 파노라마화에서는 원나라 군사의 깃발은 기본적으로 한자로 「右軍」「東路」「大元水師」등이었다. 몽골 측의 인물을 그릴 때 때로는 그들의 가치관의 독자성을 표현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그림 3-e, f) 글로벌세계의 다양성을 반영한 극히 현대적인 표현감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대륙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광둥성(广东省) 장門市(江門市) 신후이구(新會區)에 있는 송원 애문해전 문화유람구(宋元崖門海口文化遊覽區)이다. 1276 년, 崖門(야먼)에 별궁을 두고 있었던 남송의 어린 군주인 조하(송나라 단종)를 원나라가 해전 끝에 멸망시켰는데, 별궁이 있었던 자리에 만들어진 테마파크이다. 남송 측의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공원의 가장 안쪽에는 楊太后를 모시는 慈元廟, 文天祥・陸秀夫・張世傑를 모시는 大忠祠, 송나라 군사를 모시는 義士祠, 이렇게 3 개의 새로운 廟宇가 나란히 서 있다. 이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은 홍콩, 마카오의 주민들 외에도 미국에 사는 화교들이 각출했다(그림 4-a). 대몽고전쟁의 기억이 아주 먼 지역에 떨어져 사는 그 땅 출신의 사람들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림 3-a 총 (다카기 나나히코 『앙골모아 원구합전기』 第 4 卷, p. 42 에서 인용)

그림 3-b 天^テ河^カ汗 (同第 5 卷, p. 106 에서 인용)

그림 3-c 울루스 (同第 1 卷 p. 54 에서 인용)

그림 3-d 파스파 문자・위구르 문자, 몽골어 (同第 6 卷 p. 46 에서 인용)

그림 3-e 몽골 장군 (同卷 3, p. 171 에서)

그림 3-f 몽골 장군 (同卷 3, p. 172 에서)

⁶ 湯地・高橋, 1893, p. 64.

⁷ 다카기 나나히코 『앙골모아 원구합전기』 第 4 卷, 角川書店, 2015, pp. 37-38.

⁸ 同上, 第 5 卷, 2016, p. 106. 唐=「鮮卑系王朝」說や唐太宗の「天可汗」칭호에 대해서는 森安孝夫『실크로드와 당제국』講談社, 2007, p. 138, 164 参照.

⁹ 同上, 第 1 卷, 2015, p. 54.

捐建崖山金聲塔芳名

趙 [redacted] 優優 10000元	美國三藩市僑領	陳 [redacted]	
陳 [redacted] 10000元	美國熱心鄉親	陳 [redacted] 合家 3000元	
趙 [redacted] 合家 11000元	門門大市於和德基金會會長	趙 [redacted] 500元	
趙 [redacted] 廣東省武術協會會長		趙 [redacted] 500元	
趙 [redacted] 合家 12000元		趙 [redacted] 500元	
趙 [redacted] 合家 12000元		趙 [redacted] 500元	
趙 [redacted] 2000元	古井霞路五橋人	鍾 [redacted] 100美元	
趙 [redacted] 1000元			500元
趙 [redacted] 1000元		[redacted]	
趙 [redacted] 1000元		優優 8000元	熱心宗親
趙 [redacted] 1000元			祖籍古井霞路
趙 [redacted] 1000元		合家 8000元	熱心宗親
趙 [redacted] 1000元	古井霞路人		祖籍古井霞路
趙 [redacted] 1000元	雙燕磨具總經理		

橫款伍佰元以上者刻名

[illegible]

伏在盾后的元兵立即拉开布帐，制箭发炮还击

원내의 건물 중 하나에는 최근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남송과 원의 전쟁을 그린 파노라마화가 전시되어 있다. 그 중 한 장에는 원나라 군사가 대구경의 대포를 발사하는 그림이 있다(그림 4-b). 또한 입구근처의 건물에서 해전의 모습을 그린 재현 CG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었으나 그 영상에도 원나라 함대가 대포를 일제히 사격하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그림 4-c). 원내의 전시에 따르면 원군이 대포를 사용했던 것을 포함하여 해전을 상세하게 그렸다는 지방문헌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확실히 그곳에는 「砲」를 사용했다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 「砲」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을 가려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 만자니크(회회포)와 화약무기——군사기술의 동서교류

화약무기가 세계사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15 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신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으로 조선기술, 항해기술과 함께 화약무기의 개량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이전 시대에 몇 번이나 유라시아 역사를 크게 뒤바꾸어 놓은 기마유목민족의 세력이 정주 농경민사회의 제국에 대해 열세에 놓여졌던 한 요인으로서도 후자에 의한 화약무기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빨리 화약무기의 개발을 추진한 것은 중국왕조였다¹⁰. 더구나 그것을 전쟁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북방 기마유목민족계의 정권이었다.

그림 5 아라비아어 사본의 삽화에 묘사된 몽골군의 투석기 (에딘버러 대학 도서관 소장)



(<https://en.wikipedia.org/wiki/File:MongolsBesiegingACityInTheMiddleEast13thCentury.jpg>
에서 인용 2017 년 7 월 10 일 열람)

¹⁰ Jerry H. Bentley, *Old World Encounters: Cross-cultural Contacts and Exchanges in Pre-modern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81-184; Needham, Joseph. *Science & Civilization in China*, Vol. 5: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Part 7: Military Technology: the gunpowder epi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템프르, 로버트著, 조셉·니담序文, 牛山照代訳『도설 中国의 科学과 文明』河出書房新社, 1992, 改訂版 2006, pp. 380-387 (原著 Robert Temple (Foreword by Joseph Needham), *The Genius of China: 3000 Years of Science, Discovery & Invention*, Patrick Stephens Ltd., 1986; Carlton Publishing House, 2006).

유라시아대륙에 동서로 길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운 몽골—그 최대 무기는 기마유목민족나름의 조직력과 기동력이었다. 그러나 특히 중앙아시아 호라즘왕조 정복에서 바그다드 침공의 과정에서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공략이 필요해져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도입하였고 나아가 남중국 원정에서는 수군도 창설되었다¹¹. 몽골제국은 중국이나 호라즘 등 정복과정에서 각지의 다양한 기술(과 기술자 집단)을 흡수해갔다는 것이 알려져있다¹². 그것은 군사기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발표에서는 미해결된 문제가 많은 몽골제국의 화약무기사용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문헌과 고고학 등 다양한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몽골제국이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이란에서 개량된 캐터펄트(catapult)식 투석기인 만자니크(그림 5)와 같은 성벽공격용 병기 등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¹³. 만자니크는 본래 의미는 투석기이다. 얼마나 보다 큰 거석을 날려서 유라시아 대륙의 도시에 흔히 있었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것이 주된 사용목적이었다. 『集史』에는 1258 년의 훌라구 서정(西征)때 주변의 산에서 돌을 모아 투석기로 날려 성벽에 구멍을 냈다는 기록이 있다. 거석을 날릴 수 있는 만자니크가 바그다드 함락의 결정타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에서 화약무기가 사용된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集史』에 따르면 그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集史』 훌라구 칸기에 따르면 1251 년 제 4 대 황제 몽케가 동생 훌라구에게 바그다드원정을 명했을 때 중국에서 3 종류의 병기를 취급하는 기사 1 천명을 보냈다. 그들을 취급하는 병기의 종류에 따라 Manjanīqī, Naftandaz, Charkhandaz 라고 페르시아어로 쓰여져 있다¹⁴. 각각 페르시아어로 「Manjanīq 를 취급하는 자», 「Naft 를 투사하는 자», 「Charkh 를 투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Manjanīq 는 앞서 쓴 만자니크이며, Naft 는 본래 석유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화약이라는 뜻도 있다. Charkh 는 화전(소위 로켓)과 같은 것일 것이다. 종전에 이들은 「돌·석유·창을 투사한다...」라든지 「포수·화염방사수·대궁수」라는 식으로 해설되어 있다.

몽골제국 시대의 용례에 대해서는 Naft 를 석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는 올바른 판단일지도 모르나 석유 못지않게 화약이 병기로서 사용된 중국에도 그 용례가 통할지는 많이 재고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이븐 바투타 여행기에 중국 정크선의 탑승자로서 Naft 를 던지는 병사에 대한 기술이 있다. 여행기에 역주를 붙인 家島彦一(야지마 히코이치)씨는 Naft 에 대해 '돌을 면으로 감싸 석유를 묻혀서 점화하고...'라고 추정해서 말하고 있다¹⁵. 그러나 Naft 라는 말은 나중에 화약이라는 뜻도 갖게 된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중국 정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븐 바투타보다도 70 년도 전에 'てつはう'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Naft 를 화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¹¹ 蕭啓慶 「蒙元水軍之興起与蒙宋戰爭」『漢学研究』第8卷第2期(16호), 1990, 177-200; 向正樹 「蒲寿庚軍事集團과 몽골海上勢力의 대두」『東洋學法』89(3), 2007, pp. 80-82.

¹² 松田孝一 「몽골帝國內에서의 工匠의 確保와 管理의 諸相」『2000~2001 年度 科学研究費 補助金 基盤研究(B)(1)研究成果報告書碑刻等史料의 종합적 분석에 따른 몽골제국・元朝의 정치 경제 시스템의 기초적 연구』(研究代表者: 松田孝一; 課題번호: 12410096), 2002, pp. 171-200.

¹³ 杉山, 1992, p. 237; 1995, p. 177

¹⁴ 콘스탄틴 무라자 도슨著, 佐口透訳注 『몽골제국사』4(東洋文庫 235)平凡社, 1973, p. 138; 拉施特主編, 余大鈞訳 『史集』第3卷(漢訳世界學術名著叢書)北京: 商務印書館, 1997, p. 138; Фазлаллах Рашид ад-Дин, *Джәми' ат-таварих; критический текст А.А. Али-Заде*, Москва: Изд-во Наука, 1965, Persian text, p. 22.

¹⁵ 이븐 바투타著, 이븐 =주자이이編, 家島彦一訳注 『大旅行記』(東洋文庫 691) 제6권, 平凡社, 2001, p. 128; 184, 注 163.

그림 5 질러(疾藜) (도기제 폭탄) 내몽고 원문화박물관



또한 바그다드 포위전 때, 탈출하려 하는 적군에 대한 포격으로 부카테무르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이 “qawārīr naft”를 사용하는 기사가 있다¹⁶. Qawārīr 란 페르시아어로 ‘플라스크’라든지 ‘병’을 의미하며, 아랍어 qārūra(t)(의미는 유리병, 약병)의 복수형 qawārīr 에서 유래한다. 「나프톨을 뭔가 깨지기 쉬운 용기에 넣은 것」일 것이다. 만약 naft 가 화약이라면 내몽고나 규슈에서 출토되고 있는 도기제품의 화약공일 것이다(그림 6). 이 화약공이 구금조의 화북출신의 한인부대의 무기라면, 『金史』에서 볼 수 있는「震天雷」에 가까운 것이라 보인다. 즉 바그다드함락의 결정타는 어디까지나 투석기였으나 「震天雷」와 유사한 화약무기도 마찬가지로 활약했다는 것이다.

1268 년에서 1273 년까지의 몽골에 의한 襄陽(상양)공격 시, 대원올루스의 원정군 수뇌부의 한 사람인 위구르인장군 에리크야가 서역과 같은 강력한 투석기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황제 쿠빌라이가 일한국(홀라구家) 당주 아바카에게 의뢰하여 阿老瓦丁(어라오와딩)과 亦思馬因(이스마인)이 대원올루스에 파견되어¹⁷, 襄陽의 성벽을 파괴했다.

중국에는 화약무기인 震天雷가 있었으나, 만자니크만큼 강력한 투석기가 없었다. 반대로 서역에는 만자니크는 있었으나 화약의 탄환을 그것으로 날리는 발상이 없었다.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융통시킨 유연함과 구상력이야말로 유라시아세계제국을 구축한 몽골의 대단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2 종류의 화약무기와 ‘포’의 딜레마

몽골제국(원조) 시대는 일찍부터 화약무기를 발달시켜 사용해온 중국 내에서도, 화약무기가 전쟁에 광범위하게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대로 보인다. 이 시기의 화약무기사용에 대한 기술은 한문문헌 중에 아주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 시대의 것으로 인정되는 화약무기의 실물에는 아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도기로 된 폭탄(도제폭탄)과 금속관형

¹⁶ Фазлаллах Рашид ад-Дин, 1965, Persian text, p. 57.

¹⁷ 『元史』卷 128, 阿里海牙伝, p. 3125 (中華書局); 同卷 203, 工芸伝, 亦思馬因, p. 4544 「亦思馬因, 回回氏, 西域旭烈人也. 善造砲, 至元八年與阿老瓦丁至京師. 十年, 從國兵攻襄陽未下, 亦思馬因相地勢, 置砲于城東南隅, ...」; 蘇天爵『元朝名臣事略』卷 2, 丞相楚国武定公 (阿里海涯), p. 33(中華書局) 「九年, 公請以西域礮攻樊城...」.

사격성 화기의 2 종류가 있었다는 것, 그 조합이 몇 가지나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이들을 지칭하는 한자어가 확실치 않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漢語에 있어서 예부터 화약무기를 지칭하는 글자로서 「砲」(또는 나중에「炮」)를 사용해 왔다. 「砲」는 본래「口」라 쓰였고, 거석을 던지는 기계를 지칭하며, 화약무기가 등장하기 이전인『後漢書』袁紹口에 그 용례가 있다. 석자 변이 의미를 나타내고 성부의「包」가 소리를 나타낸다(일설에는 굉음을 표현한다고 함). 이것이 아마도 金~元에 걸친 시기에 화약무기를 지칭하는 글자가 되었다. 하카타만이나 이마리(伊万里)만에서 실물도 발굴되고 있는 화약무기인 'てつほう'의 한자표기도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에는 전술한 투석기의 만자니크가 '회회포(回回砲)'라 불리고 있었다. 따라서 개개의 용례에서 '砲'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가 즉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고발굴의 성과를 살피고 문헌의 용례를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 몇 가지 가설적인 고찰을 더해 보고자 한다.

a. 陶製爆口(도제폭탄)

'てつほう'란 직경 15 센티, 도기제의 구형 그릇에 화약을 넣어 폭발시키는 것이다. 1281 년의 일본원정 때 4 천척의 몽골군함이 침몰했다는 나가사키현 마츠우라시(松浦市) 鷹島(다카시마) 해저에서는 투구나 화살다발 등 많은 유물과 함께 'てつほう'가 발견되었다. 해저에서의 유물은 외부를 둘러싼 조개껍질 탓에 형상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또한 금속유물은 녹과 조개껍질이 두껍게 붙어 있어 본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3 차원적인 입체상을 고속 고출력으로 촬영할 수 있는 엑스레이선 CT 스캐너가 활용된다. 다카시마에서는 내용물이 남아 있는 'てつほう'도 발견되어 엑스레이와 CT 조사에 따르면, 내부에는 장방형 모양으로 잘린 철판, 도기편양(陶器片口)의 것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철판에는 기포가 있어 주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들이 화약의 폭발과 동시에 파쇄 비산하여 강한 살상능력을 실현했었다고 생각된다. 입부근에는 섬유질의 흔적이 보여 도화선 내지는 유기물의 내개(안쪽 두껍)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⁸.

일본 원정에 'てつほう'을 투입한 황제 쿠빌라이 시대, 원나라 군대가 화약부대를 활용하였다는 기술은 적지 않다. 한(漢)인 장군인 張榮의 아들인 君佐는 남송 평정전에서, 「火砲」를 사용했으며¹⁹, 전술한 나얀의 반란에서도 대원율루스군의 이정(李庭)이 결사대에게 '화포'를 가지고 야습하여 자폭해 적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는 기사가 있다²⁰. 또한 대원율루스가 남송의 잔당들을 멸망시킨 애산전투에서 남송의 함대에 대해 「砲」를 이용하는 계략이 검토되었다는 기술도 있다. 이 제안에 대해 「砲」를 이용해도 「불이 일어나면 즉시 배가 날라간다. 싸우느니만 못하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이어지는 전투장면에서는 「弧弩火石交作」했다고 묘사되어, 해전에서의 화기의 사용을 뒷받침해준다²¹.

¹⁸ 今津節生「4. 長崎県松浦市鷹島海底遺跡出土品の 엑스레이와 CT調査」『蒙古襲来, 元の軍船에서 보이는 것』(鷹島神崎遺跡国史跡指定記念심포지엄要旨集), 2013, pp. 287-300.

¹⁹ 『元史』卷 151, 張榮伝, p. 3582.

²⁰ 『元史』卷 162, 李庭伝, p. 3798.

²¹ 『元朝名臣事略』卷 6, 元帥張獻武王, 中華書局本, p. 106.

그림 6 파스파문자 ‘大德 2 年’銘 동제 화총 내몽고 원문화박물관



b. 금속관형 사격성 화기(金口管形射口性火器)

나아가 놀랄만한 일 중에 근현대의 총이나 대포의 조상쯤으로 보이는 금속관형의 사격성 화기까지도 몽골제국군이 널리 이용하고 있었다. 중국의 학계에서는 ‘화총(火銃)’등으로 쓰고 있는 동제, 철제의 이런 병기는 송나라 시대의 죽통을 이용한 ‘화통’과 같은 것에서 파생하여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명나라 때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²².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아마도 10 개를 훨씬 넘는 수의 ‘화총’이 원나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 박물관 등에 전시 소장되고 있다. 근년 내몽고몽원문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팔사파문자로 1298 년이 새겨진 길이 34.7 센티미터, 구경 10 센티미터의 동화총(銅火銃)이 진품으로 인정되어(그림 7)²³, 지금까지 紀年을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국 국가박물관 소장의 1332 년의 紀年의 동화총(銅火銃) 을 넘어서 가장 오래된 것이 되었다.

이 동화총은 대원율루스의 상도유적 주변의 민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상도수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 2 년이라 하면 쿠빌라이 정권말기에 제국을 뒤흔든 징기스의 남동생의 일족인 나얀 카다안의 반란을 진압한지 6 년 후이며, 대원율루스는 아직 동부 몽골리아 방면으로의 경계를 풀 수가 없어 화기부대를 배치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²² 劉旭『中国古代火藥火器史』鄭州，大象出版社，2004，p. 31,53.

²³ 鐘少異，齊木德·道爾吉，硯鴻，王兆春，楊泓「內蒙古新發現元代銅火銃及其意義」『文物』2004 年 11 月(總第 582 号)，pp.65-67+3plates.

c. 선상(船上)에서의 화약무기 사용 ?

1984 년 중국 山東省 登州港의 蓬口水城에서 3 척의 고선(古船)이 출토되었다. 그 중 1 척은 남은 길이가 28.6 미터, 남은 폭 5.6 미터였으며, 전장 32.2 미터, 폭 6 미터의 중규모 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대말기에서 명나라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오래된 배와 함께 석탄(石口), 「銅砲」, 「口砲」가 출토되었다고 한다²⁴. 화총을 사용한 해전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다면 화기를 장착한 군선이 중국에 출현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악할만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이상, 화약무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보이는 몽골제국상의 변화, 그리고 군사기술에서 본 몽골시대의 유라시아 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몽골제국의 화약무기사용의 기술사적인 고증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메이지와 현대 일본의 원구이미지를 대비해볼 때, 화약무기가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유지 타케오 등은 『원구』 결론부분에서 중앙아시아의 땅인 투르키스탄 등이 징키스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은 충신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애국심'이 모자랐던 것이라 하고, '우리 대일본제국의 인민'들은 도키무네의 영단과 여러 장군들의 담대한 용맹함 뿐 아니라 애국심이 없었다면 강적을 물리치고 우리 제국의 위용을 해외에 빛내고 일본남아의 용기를 세계에 알리지 못했을 것이라라고 말했다²⁵. 또한 유지는 야다 잇쇼가 그린 원구대유화의 화집에 쓴 서문에 청일전쟁 후인 1897 년 당시의 정세를 '宇内の 형세는 동양의 위기, 한걸음 더 다가오는 가을'이라 하면서 '지금도 평화롭게 친목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전후의 경계, 또 전날에 배가 되는 것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²⁶. 그 배경에는 러일전쟁을 앞두고 구미열강에 대항을 하면서 국가의 생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메이지의 일본이 놓여진 상황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놓여진 상황과도 어딘가 비슷하다. 유라시아동방에 사상굴지의 충격을 가져다 준 몽골의 일본 침공에 대한 기억은 만화나 TV 드라마, 영화 등의 표현의 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어떤 영감을 사람들에게 줄 것 인가. 일본을 둘러싼 극동정세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해양진출은 화제가 되기 쉽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해양파워의 확대는 명나라의 鄭和로부터 실로 600 년만에 일어난 현상이다. 외양함대의 운용이라는 의미에서는 「鄭和에 의한 대항해는 몽골제국의 해양정책의 계속일 것이다」라 한다²⁷. 鄭和의 대항해 시대에는 일본열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몽골의 일본침공 때는 쓰시마와 하카타 등이 전쟁터가 되었다. 만화 『양골모아』에서 그려진 하이테크의 상징으로서의 화약무기는 대략 730 년만에 선진적인 군사대국으로서 해상에 대두하는 이웃나라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야다 잇쇼의 파노라마화에서는 잔학성이 과장되게 그려져, 몽골의 일본침공의 공포에 가득 찬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골모아』에서 원군 군사의 전리품을 서로 뺏는 추악한 면이 그려져 있는 일은 있어도 그것은 일본측의 등장인물의 배신이나 극악무도한 행위 등 보다 더 심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본래 이 작품에는 유지·야다와 같은 애국주의적인 주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화약무기의 묘사에 대해서도 송원애문고전장의 재현 그래픽에 비하면 얕전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적대하는 타자는

²⁴ 席龍飛『中国造船史』武漢：湖北教育出版社，2000，p. 210；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煙台市博物館，蓬萊市文物局『蓬萊古船』北京：文物出版社，2006：彩圖 20，41，도판 4.

²⁵ 太田，2009，p. 106.

²⁶ 太田，2009，p. 128.

²⁷ 『新編高等世界史 B 최신판』帝国書院，2002，p. 147.

(그 극악무도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기와 구별되고, 이로써 인식되는 것 이외에) 실제보다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보통 있는 일이다. 일본, 유럽, 이슬람의 사료에서 보이는 몽골군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기록에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라크의 구 후세인정권의 핵의혹도 그런 면을 가질 것이다. 몽골군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일반적인 과장표현이 리얼리티를 가지지 않게 된 지금, 신형화약무기에 의한 것 외에는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